



고병일(가운데) 광주은행장이 지난달 2일 열린 광주FC 리그 개막전에서 후원금 전달식을 갖고 노동일 광주FC대표 이사(왼쪽)와 강기정 광주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올해 초 광주시 동구 포용금융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서 고병일 광주은행장 등 임직원들과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

지역 경제와 따뜻한 '동행' 광주은행 있어 든든합니다

광주은행

고물가 등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민의 가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영난을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 설상가상으로 경기침체 시기에 들어서면서 대출 규모는 지속 증가하고 있고, 지역민들의 가계 빚마저 매년 불어나고 있다. 또 우리 지역에서는 제때 빚을 갚지 못하는 개인 및 기업들이 증가함에 따라 연체율이 연쇄적으로 상승하는 등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FM) 외환위기에 준하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에 광주은행은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은행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 지속적인 사회공헌사업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역 내 금융소외계층을 포용하는 포용금융을 펼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역할 특색=광주은행은 지역 소재 기업들의 틀어막힌 자금난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약 1조 1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상생금융 지원을 실행했다. 또 올해 역시 총 293억원에 달하는 민생금융지원 방안과 서민금융·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으로 구성된 상생금융 지원에 1조 3030억원을 편성해 지역 상생 밀착 경영을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광주은행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저신용자 등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1월 광주은행의 설립 초심을 되새기고, 1968년 광주은행 창립 당시 본점으로 활용됐던 광주시 동구 충장로 5가 부지에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를 개점해 지역사회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는 기존 제2 금융권 또는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고객을 제1 금융권과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윈스턴 종합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 내 소상공인 또는 신용등급 5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등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단순한 자금지원 뿐만 아니라 경영컨설팅과 금융 교육을 함께 실시해 호평을 받고 있다.

또 광주은행은 매년 당기순이익의 10% 이상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사회환원 규모는 최근 4년간 약 1000억원 이상에 달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이같은 사회환원 활동 성과로 지난 2022년 대한적십자사 고객 기부클럽인 '레드크로스아너스기업'에 광주·전남 소재 첫 사례로 지정됐고, 5억 클럽에 이어 10억 클럽에도 이름을 올리는 등 지역사회에 나눔과 봉사의 기업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광주은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진심으로 대하는 이유는 지난 IMF 외환위기 당시 지역민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등 지역사회에 성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며 "광주은행은 과거의 도움을 잊지 않고 보내주시는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SG경영도 으뜸인 광주은행=광주은행이 실시하고 있는 사회공헌 사업들은 단순한 자금 융통을 위한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



광주은행 대인동 본점

넣고 있다.

광주은행의 수많은 독자적인 문화사업 중에서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펼쳐온 후원사업이 15개, 평균 후원기간은 6년에 달한다. 광주은행은 매년 후원의 종류와 금액 그리고 기간을 늘려 혜택을 확장하고 있고, 향후에도 그 범위를 넓혀 광주은행표 사회공헌사업을 꾸준히 펼칠 계획이다.

광주은행 사회공헌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광주화루 공모전'이 있다. 광주화루 공모전은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한국화 공모전으로 이름이 높다.

예향의 도시로 불리는 광주시가 한국화의 진흥을 위한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예술에 대한 공감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23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더불어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 등의 후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은 광주·전남지역의 노후화된 지역아동센터 시설을 개선하고, 대학생 고용 연계 등을 통해 취약계층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학습 돌봄 등 실질적인 지원 사업으로 현재 84호점까지 선정됐으며,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는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받는 등 재능을 키워가고 있는 지역인재를 발굴해 대학 진학까지 후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0호까지 선정됐다.

그 밖에도 광주은행은 지난 1981년 설립한 (재)광주은행학회를 통해 지금까지 4600여명의 지역 장학생에게 총 39억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또 광주은행 채용인원의 80% 이상을 광주·전남지역 출신 인재로 할당 선발하고, 지역 소재 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홍보대사를 선발해 직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인재 채용에 앞장서는 등 지역 청년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역 스포츠의 든든한 후원자=최근 통 큰 후원금 전달 등 광주은행의 지역 스포츠에 대한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창단 이래 역대 최고 성적으로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따낸 '광주FC'에 올 한해 선전 기원 후원금 40억원을 전달해 지역 스포츠의 후원자 역할을 자처했다.

또 지난달에는 광주FC의 선전을 기원하기 위해 '광주FC 적금'과 '광주FC 체크카드'를 출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광주은행은 광주·전남지역 출신 유명 스포츠 스타의 타지역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스포츠단 운영을 통해 몰착·인적 후원을 하는 등 지역 스포츠를 위해 몰심 양면 나서는 중이다.

대표 사례로 지난 2022년 11월 지역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지역의 자랑이 될 여자 실업 양궁단 '텐텐(Ten Ten) 양궁단'을 창단하고, 대한민국 여자 양궁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명장 김성은 감독을 초대감독으로 선임, 광주여대 출신 최미선·안산·김이안·박나운·최예진 선수를 영입하기도 했다.

◇지역과 동반성장을 꿈꾸는 광주은행=광주은행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금융지원 등을 꾸준히 진행해 온 결과 다수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역재투자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해당 평가는 지역예금을 받는 금융사가 지역 경제 성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 대상인 금융사가 지역은행으로서 역할에 충실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또 최근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한 '2024년도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에서도 지방은행 부문 1위를 수상해, 7년 연속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광주은행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금융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 경영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며 금융을 통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지역 상생을 이뤘 나가겠다"고 말했다.

1조 303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지원
소상공인·기업 자금난 해소 역할 특색
당기순이익 10% 이상 지역사회 환원

3년 이상 펼쳐온 문화 후원사업 15개
한국화 공모 '광주화루공모전' 매년 개최

올해 '광주FC' 선전 기원 후원금 40억
실업 양궁단 '텐텐 양궁단' 창단 운영도